

白綿紙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Bakmyunji

정 선 영 (Jung, Sun-yo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백면지의 용도 |
| 2. 백면지의 유래 | 5. 결 론 |
| 3. 백면지의 특성 | <참고문헌> |

<초 록>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이후 중국에 예폐로 그리고 왕실용으로 많이 납입된 백면지에 대한 유래, 특성, 용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백면지는 우리나라의 초기 종이로 알려진 백추지와 같은 특성인 하얗고, 광택있는 종이다. 이러한 특성이 마치 綿(cotton, silk)과 같아서 붙여진 명칭이며 그 크기는 약 85 × 60.7cm 이다. 용도는 중국에 방물로, 왕실에 진상되었지만 고급 서책지, 행궁의 벽지, 그리고 관을 덮는 부의지로도 사용되었다.

要語: 백면지, 방물지, 백추지, 경면지, 부의지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origin, characteristics and use of “Bakmyunji”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Bakmyunji is as white and sheeny as Bakchujji known as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in the earlier period. The name came from its silk or cotton-like quality and it is approximately the size of 50.23 × 35.88cm. It was generally used for presenting to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or to the emperors of China, and making the high-quality bookpapers, the wallpapers of summer palaces and “Bueiji”(paper for wrapping the dead bodies).

Key words: Bakmyunji, Bakchujji, Kyungmyunji, trading paper with China

* 이 연구는 2008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yjung@gwangju.ac.kr)

접수일: 2008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9일

1. 서론

백면지는 중국에 가는 예폐, 혹은 왕실에 제공하는 공물 등으로 조선 후기에 많이 사용된 종이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종이는 조선전기까지는 일부 종이를 제외하고 특별히 정해진 종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요구한 것에 대해 준비했던 것이므로 비교적 종류가 다양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부터는 종이의 종류나 수량, 그리고 보내는 시기 등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량의 특수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백면지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인다.

백면지는 조선후기 이후에 그 명칭이 보이는 종이로서, 이전에 방물지로 사용되었던 종이 가운데 고급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중국이나 왕실, 혹은 관청에 납입되는 종이의 품질을 낮추어서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백면지로 조정되게 됨에 따라 백면지가 조선후기 전체 종이의 생산량이나 종이의 품질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게 되었다.

그러므로 백면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제지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종이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관계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종이 선호도, 제지기술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이로써 중국에 알려진 종이이며, 중국에 현재 남아 있는 종이의 대부분은 백면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우리나라 종이에 대한 평가는 주로 백면지에 대한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은 개별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가운데 하나임과 동시에 공물지에 대한 연구 가운데 그 첫 번째이다. 그러므로 공물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물지로서의 백면지를 논하기보다 백면지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백면지의 유래, 형태 및 용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행하였다.

2. 백면지의 유래

백면지의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그 종이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문헌은 없다.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를 본 결과는 「增補文獻備考」의 인조 25(1647)년의 ‘方物 白綿紙’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¹⁾ “전방 兵船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하는데 쓰이는 것과 진상하는 방물 백면지... 등을 합한 가격이...”라고 하여 이미 이 당시 방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이전부터 백면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명칭은 아직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로, 백면지의 명칭은 이즈음부터 시작했지만 백면지와 같은 품질과 용도의 종이는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인조조 이전의 기록에 보면 방물지로서는 표전지, 자문지가 있으며²⁾ 그밖에 冊紙, 厚楮紙 등을 중국에 보내었다. 당시에는 進獻紙가 분정되고 供上紙가 황실에 공납되고 있었는데 이들 고급지가 점차로 품질이 하향하면서 백면지로 통일이 되고, 백면지의 명칭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鏡面紙, 백추지 혹은 고려지 등으로 불렸던 방물지가 백면지로 그 명칭이 고정된 것이 이 시기경이라는 것이다. 경면지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문헌에서나 중국의 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³⁾ 조선 후기 이후에는 그 예가 많지

1) 增補文獻備考 卷152 田賦考 12 “戰防兵船新造與改槩進上方物白綿紙...”

2) 이에 대한 기록은 많다. 「太宗實錄」 卷15 8年 正月 癸亥條에 보면 각도에 진현지 만장을 만들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만장은 5,000권으로서, 한건의 공물로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세종 5년 9월 庚寅, 癸巳條에 보면 進獻表紙의 수량을 분정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성종 14년 2월 병인조에도 자문지를 중국에 보낸 기록이 있다.

3) 예를 들면 동기창의 葑涇傲古圖는 白鏡面高麗紙에 그려져 있다고 하며, {「墨緣彙觀錄」, 陳大川, 「中國造紙術盛衰史」(臺北: 中外出版社, 1979), 207. 재인용} 또 앞책 204에는 허균의 景攀氏諸篇行書一百五行萬曆丁酉仲秋도 고려경면전에 쓰여 있다고 한다. (金大賢선생의 「悠然堂先生文集」 卷3에는 경면지를 바탕으로 하여 족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芝峯類說」 卷19 服用部 器用條에 보면 “우리나라 鏡面紙와 竹葉紙는 중국인이 매우 귀히 여기며...지금 널리 중히 여기는 高麗繭紙이다. 지품이 堅韌해서 견지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그 예가 많다.

않고,4) 백면지와 경면지의 명칭이 종이의 外樣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표현된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경면지라는 명칭이 백면지로 변화 고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경면지는 본래 어떤 특정 종이도 아니라 경면처럼 매끄러운 모습의 종이를 전체적으로 형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물지는 대부분이 경면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楊梅詩話」의 序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경면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錢芳標라는 사람의 자가 寶汾인데 그의 시 가운데 丹砂로 鏡箋에 질고 고르게 인쇄하고... 중국인은 우리나라의 白硯紙와 쪽제비 붓에 대해 때때로 여러 시편에 언급하였다. ... 보분이 지칭하는 소위 鏡箋은 즉 白硯紙이다. 지면이 매끄럽다” 즉 ‘경전’은 ‘경면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경면지’는 ‘백추지’라는 것이다. 백추지는 손목의 「鷄林類事」에서 신라지로 소개하여 잘 알려진 종이로서 현재 우리나라 종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명칭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이이다. 나타난 외양을 보거나 명칭에 표현된 글자를 보아 도침을 한 종이이다.

그런데 「廣才物譜」을 보면 白硯紙는 “즉 白面紙이며, 고려에서 난다.”라고 하였다. 백면지는 백추지와 같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현재의 “白面紙”는 옛날의 “백추지”와 그 형태나 품질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백추지는 ‘매끄럽고 하얀 종이’이며, “매우 견인하며 지면이 溜滑”5)하다고 하였다. 이는 도침을 한 종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6) 그러므로 백추지 = 경면지 = 백면지이며, 백면지는 즉 우리나라 종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종이의 성질을 이어 온 종이인 것이다.

백면지는 한자로 “白綿紙”로서, 「廣才物譜」에는 “白面紙”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경면지와 동일한 품질의 종이이기도 하고, 동일한 音價이기 때문에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面”자를 쓴 곳은 그 후 18세기의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日省錄」 정조 1년 10월 24일조에 보면 ‘방물이 작년에 비해 좋은데 백면지가

4) 明宗實錄」卷2 卽位年 11月 遼東大人이 원하는 것 가운데 白綿紙가 있는데 공이 많이 들어가 응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

5) 「楊梅詩話」 「序」 “中州人... 寶汾所稱鏡箋 卽白硯紙 紙面溜滑.”

6) 도침을 硯紙한다고도 표현한다. 정선영, “고문서의 紙質,” 古文書研究 20(2002. 2), 76-78.

품질이 나쁜 것과 섞여 있다⁷⁾고 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面”을 썼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는 “綿”을 사용하였다. 문맥으로 보아 앞의 백면지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은 같은 음가를 지니고 있으므로 통용하여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처음에는 백면지를 지칭할 때 두 글자를 함께 썼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되며, 그러므로 무심히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한편 명나라 송응성이 쓴 天工開物 의 皮紙만드는 법에 보면 “樹皮로 만드는 종이는 견고하며, 그 세로로 찢으면 마치 면사처럼 끊어지고 가로로 찢으면 힘이 든다고 해서 “白綿紙”라고 한다는 설명이 있다. 그는 또 “조선의 백추지는 무슨 원료로 만들었는지는 모른다.”⁸⁾고 하였다. 이 설명으로 본다면 백면지는 면(COTTON)과 같아서 붙은 이름인 것을 알 수 있다. 송응성은 1587년부터 1664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天工開物」은 우리나라 공예 등 다방면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서적이다. 송응성의 생존시기나 더 앞선 중국자료에서 백면지라는 명칭이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서 이 설명이 우리나라 백면지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백면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백추지는 백면지이고 백면지는 경면지와 같다면 결국 백면지는 좋은 면과 같은 품질 좋은 종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중국에도 현재 백면지라는 명칭이 있는데 「天工開物」과 같이 마치 면처럼 품질이 좋아서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칭과 원료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종이의 대부분이 닥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다.⁹⁾

“綿”이라는 글자는 본래 “SILK”를 나타내지만 꼭 비단을 나타낸 것은 아니며,

7) 日省錄 正祖 1年 10月 24日 “凡諸方物昨年何如 鄭民始 曰比昨年則大勝而至於白面紙 不無劣紙之間雜矣 予曰 白綿紙 令戶判 更爲精 ...,” 정조 2년 9월 29일, 정조 3년 10월 24일, 그리고 영조 41(1765)년 10월 4일의 「景賢堂受爵時膳錄」을 들 수 있다.

8) 宋應星 天工開物 卷中 造皮紙法 “凡皮料堅固紙 其縱文紙斷如綿絲 故曰綿紙 衡斷且費力...朝鮮白礮紙 不知用何質料.”

9) 陳剛, “中國西南地區的皮紙製造技術,” 「제 3회 종이문화제의 보존 및 복원 국제 포럼 논문집」(2008), 42. 중국 운남성의 鶴慶과 귀주성의 貞風에서 만드는 백면지는 비교적 원시적 기술로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두곳의 원료는 모두 닥이었다. 한국의 백면지가 널리 알려지면서 붙이기 시작한 것인지, 혹은 이전부터 면처럼 품질이 좋아서 붙여진 명칭인지 알 수 없지만 면처럼 좋기 때문에 붙여진 것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COTTON”을 나타내는 면도 같이 쓴다.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의궤, 고문서 등의 대부분에도 “綿”자는 통용하고 있다. 무명의 경우 白綿, 靑綿 등으로 표기하였고, SILK인 경우에는 白綿紬, 혹은 靑綿綾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마도 거친 면으로 생각되는 木棉은 “棉”을 사용하여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동일하게 “綿”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백면지는 우리나라 종이를 繭紙라고 한 기록이 많지만¹⁰⁾ 실제 누에로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품질이 좋은 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면화로 만든 “백면”을 빗대어 만든 명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이 매끄럽고 좋아서 견지로 알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silk 같아서 붙여진 것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백면지의 명칭은 백추지로부터 내려오는 하얗고 광택있는 품질 좋은 종이로서, 마치 견과 같기도 하고, 혹은 면과 같기도 해서 붙여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3. 백면지의 특성

백면지의 명칭 자체가 이 종이의 외면적 특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사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실상 외면적인 형태의 특징은 이미 기술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백면지가 당시 중요한 종이 혹은 방물지 가운데 품질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크기와 무게, 원료와 생산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3.1 품질

백면지라는 명칭이 나타나기 이전 세조 9년에 중국의 正朝使 柳守剛이 황제가 “白厚楮紙”를 구한다고 하여 조지소에서 이를 만들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¹¹⁾

10) 芝峯類說, 도릉의 考槃餘事, 당병균의 文房肆庫圖說, 蓉山叢書, 한치운의 『海東繹史』 등 이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다.

11) 世祖實錄 卷30, 9年 2月 戊寅 “正朝使柳守剛 先送通信使來言 皇帝求白厚楮紙 命送造紙所辦之.”

즉 중국에서 하얗고 두꺼운 종이를 우리나라에서 구했다는 것이다. 「經國大典」에 보면 赴京이나 隣國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정해진 숫자 이외의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厚紙, 채문석 등을 몰래 파는 사람은 장 백대와 3년의 도형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¹²⁾ 즉 중국에 가는 종이는 두꺼운 종이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중국 뿐 아니라 왕실에 가는 방물도 역시 두꺼운 종이이며,¹³⁾ 인조 이후의 방물지에 대한 기록에서 특별히 중국이나, 우리나라 왕실, 기관에 납입하는 종이를 구분지어서 분정하거나 만드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¹⁴⁾ 세종 5년 9월 庚寅, 癸巳條에 보면 進獻表紙의 수량을 분정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진헌상품표지 1,500권을 중하품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상품도런지 1,000권을 삼도에 배정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이전에는 차등을 두기도 했고, 고급지를 상당량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백면지는 하얗고 두꺼운 후지, 공물지와 같은 특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¹⁵⁾

매우 두껍고 고급지인 자문·표전지는 백면지를 정기적으로 보낸 이후에도 중국에 보내기는 했지만 그 수량이 적었다. 중종조에 자문·표전지의 공물 수량은 다음에 보듯이 5권 정도였다. “초에는 5권이 정해진 숫자였는데 恒貢이 될까 걱정이 되어 계속할 수 없었다. 지금 돌아온 사신(정대년)에게 들으니 황제가 항공의 의사는 없다고 하므로 곧 5권을 더해 보내도 무방하다고 명하셨다.”¹⁶⁾ 즉 표전지 등은 5권 정도로 비교적 적어지고¹⁷⁾ 대신 백면지가 늘었으며, 방물은

12) 「經國大典」卷5 刑典 禁制.

13) 顯宗改修實錄 卷6 2年 9月 己巳 “供上紙紙品甚厚 雖以草注紙代之 似不可 上曰以民弊言之 則全減可也.”

14) 세종 5년 9월 庚寅, 癸巳條에 보면 進獻表紙의 국용표지 등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물을 분정하는데 차등을 두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15) 貢弊 卷3 長興庫貢人 “春秋館史草紙每朔2卷 本是厚白紙 而必以白綿紙中過厚者陞品議政府司錄.”

16) 中宗實錄」卷100 38年 6月 壬寅 “領議政尹股等議 表箋紙初五卷爲定數者 慮其爲恒貢而難繼也 今聞回來使臣鄭大年之言 皇帝無恒貢之意 則依上教加五卷 入送無妨.”

17) 世宗實錄」 권21 5年 9월 庚寅에 보면 장흥고에 1553권밖에 없으니 하삼도에 영을 내려 상품표지 1,500권을 더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만 해도 표지를 진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백면지가 되어 매년 3, 4번 정기적으로 중국에 보내는 종이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왕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선조와 현종 2년에 공상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호조가 아뢰기를 ... 공상지는 종이의 품질이 정결하고 또한 매우 길고 넓으므로 각 고을 에서 상납할 때 준비가 어렵고 균색한 상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諭書와 敎書 및 不允 批答을 내릴 때도 모두 공상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 미안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종이의 결핍을 면치 못하게 되어 민간에 더 배정해야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교서 등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초주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¹⁸⁾

供上紙의 품질이 너무 두꺼워 비록 草注紙로 대신하여도 팬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임금의 민폐로 말하면 전부 감하는 것이 옳다. 어찌 다른 종이로 대신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가. 두 慈殿을 제외한 다른 곳은 초주지로 대신하고 하였다.¹⁹⁾

공상지의 경우는 초주지보다 더 두껍고, 더 좋은 품질의 종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주지는 백면지보다 더 품질이 좋은 종이다. 결국 방물지는 일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大典會通」에 보면 초주지는 한권 20장의 무게가 11량 이상이라고 했으며, 백면지의 경우는 3근 14량이라 했으니 백면지의 무게가 초주지의 약 5.6배정도로 매우 차이가 있다. 면적은 초주지가 백면지의 약 77%정도인데 반해서 무게는 초주지가 백면지의 약 18%밖에 되지 않는다. 백면지는 원료가 더 많이 들었으며, 두꺼웠음을 알 수 있다. 두껍게 만들고 여기에 혹은 진분류, 혹은 기타 첨가물을

18) 宣祖實錄 卷162 36年 5月 甲戌 “戶曹啓曰 ... 供上紙地品精潔 亦甚長廣 列邑上納紙際其難備窘迫之狀 難以形言 供上之外決不可利用於他處 而如諭敎書及不允批答皆以供上紙用之非徒 極爲未安 以此紙地未免缺乏 其勢將至於加農民間 自今以後請一切勿用敎書等紙 以草注紙行用何如 允” 이와 비슷한 예가 영조조에도 있었다. 「日省錄 영조 52년 10월 29일에 보면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책을 하였다.

19) 顯宗改修實錄 卷6 2年 9月 己巳 “供上紙紙品甚厚 雖以草注紙代之 似無不可 上曰以民弊言之 則全減可也 何難於代他紙乎 兩慈殿外他殿則以草注紙代入可也.”

넣어 도침을 해서 치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초주지보다 공상지가 더 좋은 것이라면 그만큼 폐해가 컸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든 것처럼 공상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폐해가 많음을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공상지가 점차로 백면지로 대체되어 갔다고 추측된다.

종이의 규격이 규정되어 있는 「大典會通」을 기준으로 각종 종이와 비교해 본다.

「大典會通」에는 대호지와 백면지가 품질과 크기가 동일하게 표기되었으며, 「百憲總要」 역시 동일하게 표기하였지만 동일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백면지의 품질을 대체로 대호지와 맞추긴 하였지만 대호지가 일반적으로 지가가 높았으므로 더 고급지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 크기도 「度支準折」에 보면 대호지는 길이가 2척 4촌 2분이며 넓이가 1척 7촌으로 「大典會通」의 규정보다 약간 작다.

당시 지가를 비교해보면 그 품질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들어가는 殿마다, 혹은 때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졌지만 「肅宗實錄」卷36 27年 3月 丁未條에 보면 대호지의 대동가격은 1석이며 소호지는 7두, 백면지는 5두인데, 대호지는 그대로 시행하고 소호지와 백면지는 너무 싸다고 해서 1두씩을 올려서 각각 8두와 6두씩으로 정했다.

「萬機要覽」에 보면 宣惠廳에 납입한 地契와 紙塵의 가격이 방물백면지는 3남의 종이가 7斗이며, 대호지는 양남에서 생산되고, 1권가는 1석으로 훨씬 비싸다. 소호지는 3남의 것이 8두 5승으로서 백면지보다 더 비싸다. 즉 백면지는 대호지와 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호지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백면지는 대호지와 소호지의 약 37%, 88%의 값밖에 되지 않는다.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백면지의 품질은 한참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萬機要覽」供上1年例에 보면 저주지는 1권당 3兩이며, 백면지는 2兩 8錢으로서 백면지가 저주지의 약 93%에 달한다.

백면지는 숙종 18(1692)년 5월에 빈청이 열렸는데 백면지를 권당 4두였지만 너무 얇가라 5두를 주었으며, 삼남에 지가로 준 쌀이 13,000여석이라고 한다.²⁰⁾

20) 備邊司謄錄 肅宗 18年 5月, 동 6월에 보면 兩湖 대동설립시에 各色紙를 4두로 정했는데

처음 대동법을 시행할 때는 4두에서 시작해서 점차로 5두, 6두, 7두, 18세기 중반에 순조 8년경에 이르러 8두로 올랐고, 순조 14년에는 2량으로 주자소에 납입하고 있었으며, 2량 8전까지 가격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地理志」의 한성부 조지소조에 보면 사대에 필요한 종이로 表, 箋, 奏, 咨文紙를 들고 있다. 궐공에서는 진헌표지와 국용표지를 나누고 있다. 후기로 갈수록 공상지나 진헌지의 명칭이 거의 보이지 않고, 21) 백면지의 공량이 매우 많아진 것을 보면 이들 고품질의 종이는 일부는 약간 하품인 초주지로 대체하고, 나머지, 특히 중국에 보내는 방물지의 경우 표전 자문지 약간을 제외한 나머지 종이는 거의 백면지로 통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면지의 품질을 다른 종이와 비교해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지서에서 만든 표지와 자문지의 경우는 1장당의 값이므로 무척 비쌌음을 알 수 있다. 표지는 자문지보다 길이만 짧은 것이다.

<표 1> 종이의 가격

| 번호 | 명칭 | 가격(권) | 출전 | 비고 |
|----|----------|----------|---------------------------------|-----------|
| 1 | 楮注紙 | 3兩 | 「萬機要覽」年例 | |
| | | 12斗 | 「萬機要覽」尙衣院 | 호남 |
| 2 | (供上) 草注紙 | 3兩 | 「萬機要覽」大殿 | |
| | | 1石 | 「萬機要覽」豐儲倉, 長寧殿 | 삼남 |
| 3 | 大好紙 | 1石 | 「萬機要覽」·宣惠廳, 「肅宗實錄」卷36 27年 3月 丁未 | |
| 4 | 白綿紙 | 2兩 8錢 | 「萬機要覽」年例 | |
| | | 2兩 | 「鑄字所應行節目」 | |
| | | 1兩 8錢 7分 | 「園行排設定例」地衣秩 | |
| | | 7斗 | 「萬機要覽」宣惠廳 | |
| | | 6斗(5斗) | 「肅宗實錄」卷36 27年 3月 丁未 | (대동가격) |
| | | 5斗 | 「備邊司謄錄」肅宗 18年 6月 | |
| | | 4斗(5斗) | 「備邊司謄錄」肅宗 18年 5月 | 대동(외방인가격) |

너무 얇가라 5두를 주었다고 한다. 「增補文獻備考」卷151 田賦考11 景宗 17年條에는 삼남방물백면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21) 조선 중기까지는 공상지나 진헌지의 경우 그 자체가 고유명사화할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그 명칭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고유 명칭이 아니라 방물에 필요한 종이를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 | | | |
|---|-----|-------------|---------------------|--------|
| 5 | 小好紙 | 8斗5升 | 「萬機要覽」·宣惠廳 | |
| | | 8斗(7斗) | 「肅宗實錄」卷36 27年 3月 丁未 | (대동가격) |
| 6 | 表咨紙 | 1兩 3錢 4分(장) | 「度支志」外篇 | |

3.2 크기와 무게

「百憲總要」에 보면 8종의 종이에 대한 크기와 무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종이는 상품도련지로서 1권의 무게가 6근이며, 다음이 官教紙, 그 다음이 大好紙, 즉 백면지인데 무게가 3근 14량, 길이는 2척 4촌 5분, 넓이는 1척 7촌 5분이라고 하였다. 소호지는 이보다 조금 작아서 2척 2촌 5분, 1척 5촌 5분이며, 무게가 2근 5량이다.²²⁾ 다음으로 草注紙는 길이 2척 2촌, 넓이 1척 5촌, 저주지는 1척 6촌, 넓이 1척 4촌(「大典會通」), 저주지는 「度支準折」의 경우 소호지와 비슷하다. 초주지와 저주지는 사실상 같으며, 마지막으로 公事紙의 순이다. 이 순서와 수치는 「大典會通」의 규정과 같다.²³⁾

또 무게를 기준으로 전체 종이 가운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상품도련지 > 관교지 > 대호지 = 백면지 > 소호지 > 도련저주지 > 저주지 = 초주지 > 공사지의 순서이다. 도련저주지는 저주지를 사면을 잘라 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주지의 크기는 1척 6촌, 1척 4촌인데 도련한 저주지는 2근 이상으로 되어있어 백면지보다 무게가 많이 적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본래 저주지는 초주지나 계목지 등과 같은 것으로 「大典續錄」이나 「續大典」, 「大典會通」 모두 그 무게가 11兩 이상으로 되어 있다. 특히 그 크기가 길이 1척 6촌, 넓이 1척 4촌임을 감안한다면 백면지보다 한 장당 면적은 약 52% 작으면서 무게는 약 77%이다. 저주지, 초주지, 혹은 공사지는 특별히 두껍거나 도침을 할 필요가 없는 종이이므로 무게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무게는 많으므로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치밀한 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련저주지는 일반 저주지를 도련을 한 것으로 조금 크기가

22) 「百憲總要」卷2 紙品.

23) 「大典會通」卷6 工典 雜令.

작아졌지만 저주지의 품질은 같은데 무게가 더 무거워졌으므로 가공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면지는 주척으로 계산하면 약 50.23 × 35.88cm이며, 황중척으로 계산하면 약 85.0 × 60.7cm이다.²⁴⁾

<표 2> 종이의 크기와 무게 비교

| 번호 | 명칭 | 크기(척) | 무게(권) | 출전 |
|----|-------|-------------|-------|-------------------------------|
| 1 | 草注紙 | 2.2 × 1.5 | 11兩이상 | 「續大典」, 「大典會通」, 「大典續錄」, 「度支準折」 |
| 2 | 楮注紙 | 1.6 × 1.4 | 11兩이상 | 「大典會通」 |
| | | 2.25 × 1.5 | | 「度支準折」 |
| 3 | 大好紙 | 2.45 × 1.75 | 3斤14兩 | 「大典會通」, |
| | | 2.42 × 1.7 | | 「度支準折」 |
| 4 | 白綿紙 | 2.45 × 1.75 | 3근14량 | 「大典會通」 |
| 5 | 小好紙 | 2.25 × 1.55 | 2근5량 | 「大典會通」 |
| | | 2.22 × 1.6 | | 「度支準折」 |
| 6 | 公事紙 | | 6兩 | 「大典會通」 |
| 7 | 官教紙 | | 4斤 | 「大典會通」 |
| 8 | 上品擣鍊紙 | | 6斤 | 「大典會通」 |
| 9 | 擣鍊楮注紙 | | 2斤 | 「大典會通」 |
| 10 | 厚白紙 | 2.15 × 1.4 | | 「度支準折」, |

貢弊 에 보면 종이 공물에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종이의 품질을 높여서 받는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더불어 종이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따르지 못하자 종이 배정이 하향조정이 된 것 같다. 당하관의 朔書紙가 본래 저주지였으며, 비변사의 계목지도 본래 저주지이지만 공물량 가운데 반을 소호지로 대체하도록 한 것을 보아 종이의 부족이 심각했으며, 폐해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백면지로 조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백면지의 경우는 품질이 점차 열악해져서 퇴하기도 하고, 1%정도의 수량을 더 받기도 하였지만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백면지의

2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1997), 12-18.에 의거 주척은 약 20.45cm, 황중척은 34.7cm로 계산하였다.

경우 문제가 불거져 매우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²⁵⁾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백면지는 그 노력이 많이 드는 후지에 도침을 한 종이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常紙類가 아닌 두껍고 무거우며 백추지, 혹은 경면지와 같이 광택이 있어서 마치 면포와 비슷할 정도로 품질 좋은 종이이다.

3.3 원료

송응성이나 중국사람은 우리나라의 종이 매끄럽고 하얗기 때문에 견으로 만든 것으로 알았더니 닥(楮皮)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²⁶⁾ 인조 이후 상당량의 백면지가 중국에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한국 종이는 일부 표전지, 혹은 자문지를 제외하고는 경면지, 그리고 백면지일 것이다. 특히 대부분은 백면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종이라고 하는 것은 백면지, 외형으로는 하얗고, 두꺼우며, 매끄럽게 도침을 한 종이일 것이다. 백면지가 아닌 두꺼운 자문, 표전지의 경우도 그 원료는 크게 다를 수 없다.²⁷⁾

백면지에 대해서 특별히 원료를 제시한 경우는 없다. 한편 반길성은 그의 책에 중국의 역대 “蠶茧紙”, “白綿紙”의 원료를 분석한 결과 닥나무, 뽕나무 등의 수피나 마를 사용하여 만든 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⁸⁾ 또 曹靜樓와 吳鐘에 의하면

25) 日省錄 정조 2년 3월 5, 16일, 4월 7일, 3년 1월 4일, 9월 26일, 3년 10월, 7년 2월 25일, 등 그 예가 너무 많다.

26) 文房肆攷圖說, 卷3 紙筆墨攷 “王羲之書蘭亭序 用蠶繭作紙 故名繭紙 今都中所用高麗紙 始自建中元年 日本使者與能 所獻方物內紙似繭卽此也 以樹皮作紙 名曰楮紙,”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紙品辨證說 “我東紙品古有繭紙名天下矣 自昔不用他料 但取楮穀 而以繭名紙者 楮紙之堅厚潤滑如繭故 稱以繭紙者也 中原亦有穀而楚人以楮則楮紙非獨我也 每見中國紙則軟薄鮮潔然 不如我紙之硬厚 滑澤者不用楮料也”, 屠隆의 考槃餘事 에도 고려지가 綿繭으로 되어 있으며 색이 綾과 같이 하얗고 견인하기가 帛과 같다고 하였다. 이 밖에 姜紹書의 韻石齋筆談 에 우리나라의 皇華集 에 대해 관각이 매우 정교하면서 가지런하며, 견지는 빛나고 깨끗하기가 옥과같다고 하였다. 『海東繹史』에도 강희제가 우리나라 종이를 견지로 생각했었다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27) 정선영, “고문서의 지질,” 『古文書研究』 20(2002. 2), 72-77.

28) 潘吉星, 『中國造紙技術史』. (北京: 文物出版社, 1979), 5.

북경 고궁박물관에 있는 倦勤齋의 전면에 그린 그림을 복원할 때 건륭시기의 고려지를 모방한 배접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건륭년간의 고려지의 원료는 뽕나무라는 것이다.²⁹⁾ 고려지라고 현재까지 칭하는 것을 보아도 조선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들어간 백면지의 상당 부분이 뽕나무 종이였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뽕나무 종이가 중국에 갔을 개연성에 대해 쓴 바 있다.³⁰⁾

백면지와 같은 품질의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원료는 장섬유여야하며, 장섬유의 대표격인 닥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삼베와 모시를 들 수 있겠는데 마는 종이를 만들었을 때 광택면에서 많이 떨어지므로 닥나무와 뽕나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뽕나무는 섬유가 더 가늘고 길며, 나뭇잎은 누에를 먹고 남는 나무의 인피를 사용하는 것이라서 부족한 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닥을 사용하여 만드는 종이의 경우에도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얼마나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특히 일반인이 보면 이 두 종류의 종이는 구분을 할 수 없으며, 현재의 뽕나무는 닥나무보다 종이의 원료로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닥 원료가 부족했을 때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3.4 생산지

백면지의 생산지는 원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닥과 뽕을 많이 생산하는 곳은 아무래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가 될 것이다. 백면지의 생산지가 직접 기록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대동법을 시행한 후에도 종이의 경우는 각 읍에 나누어 배정하였지만 폐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다.

현종시 ‘金城縣에 속해 있는 쌍계사가 금성현의 백면지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승선군이 이 절을 떼어 받아서 금성현이 손을 못 댈다.’³¹⁾는 기사를 보면

29) 曹靜樓, 吳鐘, “仿乾隆高麗紙的工藝研究,” 『중이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한·중·일 국제포럼』 (2006), 162-179.

30) 정선영, “桑紙의 保存性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2) (2004. 12), 1-22.

대부분의 현이 백면지를 나누어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 읍에 배정된 수량도 절이 맡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라감영의 적지 않은 공물도 절에서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큰 절에는 80여권, 작은 절은 60여권을 아예 배분하여 스님들이 도피하는 결과를 낳았다³²⁾고 한다.

현종 8(1667)년 기록에 보면 장선징이 백면지에 대한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종에게 아뢰고 있다.

“신이 이번 보령에 갔을 때 연로의 수령의 말을 들으니, 백면지가 가장 폐단이 컸습니다. 비록 해조의 견본과 같은 것을 준비하여 올려 보내도 서울에 도착된 후에 퇴짜를 맞는 일이 있으며, 퇴짜를 맞고는 서울에서 똑 같은 것을 두배나 비싸게 사서 바치기 때문에 민폐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변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들기에 대동미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으며, 서울은 모든 물건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제값만 주면 물건이 다리가 없어도 오고 있으니 신의 생각에 백면지의 값을 정해놓은 값 외에 적당히 더 주고 서울에서 구입하면 민폐도 자연히 없어질 것이며, 나라에 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애초에 각 읍에다 분정한 것은 뜻이 있어 한 일이니 종전 대로 외방에다 분정하고 퇴짜당한 종이는 본 읍에 보내지 말고 해당 청이 소유한 쌀로 값을 주고 해조로 보내라. 정한 값 이외에 적당한 값을 더 주고 서울에서 사들이는 것과 두 가지 가운데 편리 여부를 의논하여 처리하라.”³³⁾

이를 보아도 이미 보령지역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방물로 백면지를 생산해 공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이 분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 규장각에 있는 충청도지역의 읍지를 보면 중국에 보내는 세폐로 백면지를 충주에서 특산물로 생산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충청도의 경우 비교적 적은 양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충청도는 상대적으

31) 顯宗改修實錄 卷2 元年 3月 庚申 “金城縣有雙鷄寺 本縣白綿紙皆責出於此寺 而爲崇善君家所折受 使本縣不得不下手.”

32) 『顯宗改修實錄』 卷23 11年 10月 辛卯.

33) 『顯宗實錄』 卷8 5年 3月 14日 丙子.

34) 顯宗實錄 卷8 5年 3月 25日 丁亥에 보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홍명하가 종이는 각 관에 나누어 배정하기를 원하였는데 그 의견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로 원료가 적어서인지 후기로 갈수록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맡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紙價도 양도에서 만든 紙地가 충청도에서 만든 것보다 비쌌다.

앞의 문헌에서 본 바와 같이 납입하는 전각이나 관청에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맡는 경우도 있었지만, 혹은 충청도까지 3남 지역에서 맡기도 하였다. 숙종 연간에도 전라도 감사가 백면지의 폐에 대하여 장계를 올린 것을 영의정이 “삼남의 백면지폐”³⁵⁾라고 고하고 있다. 다른 지방은 닥나무나 뽕나무 등 장섬유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맡는 것이 쉽지 않아서 주로 고급지는 삼도에서 만들었지만 공지의 양 때문에 걱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나타내준 기록이다. 이 기사에는 백면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후 중국에 보낸 종이, 특히 賻儀紙는 백면지였으므로 이 기사의 紙地는 백면지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호조가 아뢰기를 심양의 상사의 부의 물건 가운데 가장 고민인 종이입니다. 전후에 요구한 숫자가 7, 8만속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의 종이 생산지는 오로지 삼남뿐이니 부득이 삼도에 분정하여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부족한 수량은 서울의 저 자에서 모으되 돈을 주고 모아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³⁶⁾

효종 2년에 민응형이 호남에 전에 감면하였던 공상지의 진상을 다시 실시하려 하였으나 기근이 심하여 반감시켜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 先朝에서의 수량이 더 많았지만 전란 후에 감해진 것이므로 다시 실시하려 했으나 그 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⁷⁾ 공상지에는 초주지, 저주지 등과 함께 백면지도 포함이 된 것이겠다.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로는 대납의 형태가 되었지만³⁸⁾ 상기

35) 備邊司謄錄 肅宗 30年 2月 “領議政申所啓 此亦全羅監司閱鎮達狀啓 而以三南白綿紙之弊”

36) 仁祖實錄 卷44 21年 9月 癸巳 “戶曹啓曰 瀋陽之喪賻儀諸物中 最可悶者紙地也 前後所求之數 將至七八萬束 我國紙地所產 只在三南 不得已分定於下三道 使之措備上送 而此後未准之數 宜搜括京市給價買送 從之.”

37) 『宣祖實錄』卷162 36年 5月 甲戌.

38) 『湖南大同事目』, 『湖西大同事目』 등에 보면 조지서 하인, 혹은 서울에서 쌀을 지불하고 종이를 조달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한 것과 같이 각 고을에서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는 공물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백면지자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물론 누구를 거쳐 오더라도 종이는 결국 三道에서 생산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 백면지의 용도

백면지는 중국과 우리나라 왕실 및 관청에 정기적으로 납입되었다. 이 종이는 종이 사용될 수 있는 곳에는 모두 사용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일반 常用紙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한 용도가 있었다. 외국에는 예폐와 부의지로 보내졌는데, 이의 비중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기타는 우리나라에서의 용도라고 할 수 있겠다.

4.1 외국에 대한 예폐

우선 예폐로 상당량이 매년 중국으로 보내졌다. 광서 9(1883)년 중국에 보낸 백면지 양을 참고로 살펴보면, 정조예물로 어전에 1,400권, 황태후에게 1,300권, 동지예물로 어전에 1,300권, 성절예물로 어전에 1,400권, 황태후에게 1,300권이 갔으며, 여기에 몇권씩이 더해졌다.³⁹⁾ 모두 6,700여권에 달한다.⁴⁰⁾ 이 밖에 增補文獻備考에 보면 年例節使方物의 수는 백면지가 4,000권이라고 하였다.⁴¹⁾

정례 이외의 사은방물도 많은데 광서 8년에만 각종 사은 등에 3차례 백면지 2,000권씩 모두 6,000권을 보냈다. 「勅使瞻錄」 기미년 6월 6일에 기록되어 있는

39) 「禮曹關」.

40) 通文館志 事大上 方物數目에 보면 續錄 에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합하여 6,000권이라 하였고 이 밖에 사은사 2,000권, 주청사 황태자전에 500권으로 되어 있고 진주사와 진하사도 같다고 한다. 그러나 옹정 6년 7월 2일의 「典客司方物瞻錄」에 보면 각 정례예물의 경우도 600권 정도가 적다. 아마 실제 보낸 수량은 더 많은 것 같다.

41) 「增補文獻備考」 卷155 財用考2.

것을 살펴보면 진하 겸 사은사 방물은 2,000권이 전례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을유년에 섭정왕에게 사례물로 500권, 정축년 奏請禮物을 보내는 물목 가운데 인삼을 대신하여 모두 2,500권이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세폐 이외에 각종 사은 방물까지 더하면 만권이 넘는 방대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시로 보내는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恒式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니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백성의 요역 가운데 백면지가 가장 무겁다”⁴²⁾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백면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질의 종지로 경면지가 노력이 많이 든다는 기록도 보인다.⁴³⁾

이 밖에 조선조 왕실자료의 대부분에서 연회나, 칙사 등에게도 중국에 백면지 등의 방물을 보낸 기록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勅使騰錄」에는 정축년 사신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도 500권에, 인삼대신 200권, 같은 책 계묘년 10월 21일자에도 3인의 사신에게 별도로 주는 것을 減하여 주었는데도 2,000권이 나 되었다. 강희 19년 「頒赦勅遠接使別人情」에도 백면지를 보낸 기록이 있는데 大通官이 115권과 6괴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록은 수를 셀 수도 없다. 어떤 경우는 통관이 받은 백면지를 나중에 가져가는데 그 양이 2,500권이 나 되었다⁴⁴⁾는 것을 보면 중국에 가는 종이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게 한다. 어떤 경우는 사신이 뇌물까지 받아 다시 팔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⁴⁵⁾ 「通文館志」의 事大 禮單에 보면 대통관으로부터 家丁에 까지 백면지가 배정되었다.

정묘호란이 있는 후에는 청뿐만 아니라 금에도 폐백을 보냈는데, 원래의 수량이 1,000권이었음에도 인조 10년에 금차에게 보낼 예물을 감하면서 백면지도 500권으로 감하였지만⁴⁶⁾ 다음해에 다시 1,000권을 보낸 기록이 있다. 아마도 금이

42) 「顯宗實錄」 卷18 11년 10월 辛卯.

43) 「明宗實錄」 권2 卽位年 11月 壬戌에 보면 요동대인이 예단을 원하는데 토산이 아닌 것도 있으며, 토산이라도 경면지는 그 노력이 많이 든다고 불가하다고 하였다.

44) 「英祖實錄」 권90 33年 9月 己未, 같은 책 卷29 7年 4月 丁巳에는 몰래 부척사에게 수백권을 주어 기쁘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

45) 「孝宗實錄」 卷10 4年 1月 甲申.

46) 「仁祖實錄」 卷27 10年 11月 辛亥.

노해서 다시 원래수량을 보낸 것 같다. 이는 해마다 보낸 숫자로,⁴⁷⁾ 인조 14년에는 여기다 500권을 추가하였다.⁴⁸⁾ 또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는 벌금까지 부과하여⁴⁹⁾ 매우 가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행 방물 백면지를 훔쳐서 청인에게 팔면梟示 등의 엄벌을 한다⁵⁰⁾는 자료가 있어 그 힘들었던 상황을 짐작할 만하다.

일본에도 많지는 않지만 백면지가 보내졌는데 예조에서 고종 14년에 外務大丞에게 백면지 30권을 주었다는 예가 있다.⁵¹⁾

4.2 왕실과 관청의 공물

외국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어전이나 왕비전, 대비전 등에도 백면지가 들어 갔으며, 따로 책지로서가 아니라 각 관청에 납입된 백면지는 그때 그때 책지로도, 문서용지로, 혹은 예를 들어 세자가 맹자 를 다 읽을 때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⁵²⁾ 이 양도 매우 컸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품질을 높여 사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폐가 많았는데 「貢弊」 卷5에 보면 乙巳年 이후 帛에서 쓰는 일용문서를 방물에 사용하는 백면지를 사용했다고 하며, 그 가격은 배라고 했다.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되거나 납입된 예는 무척 많다. 규장각에 소장된 각종 문서류, 의궤, 「日省錄」, 「內閣日曆」 등을 찾아 본 결과 거의 700건에 달하는 백면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의 90%이상이 백면지의 사용이나 납입권수에 대한 기재였다. 따라서 그만큼 백면지의 공물 수가 많았으며, 사용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備邊司臚錄 인조 27년 3월 8일에 보면 백면지의 양이 14,900권이며, 효종1년

47) 仁祖實錄 卷28 11年 3月 戊申, 卷 29 12年 1月 乙未, 20년에 10월 을축 예도 1,000권을 보냈다.

48) 「仁祖實錄」 卷32 14年 2月 己卯.

49) 「顯宗改修實錄」 卷17 8年 3月 乙未.

50) 「受教新補」 賊盜.

51) 「高宗實錄」 卷14 11年 壬戌.

52) 「純祖實錄」 卷22, 19年 12月 丁未에는 세자가 「論語」를 끝내자 백면지 10권을 주었고, 다음해 12월 2 병오에는 「孟子」를 마치자 20권을 준 예가 있다.

12월 10일자는 66,016권을 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양임을 알 수 있고, 종이 전체 가운데 백면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4.3 부의지와 혼례지

이러한 정례적인 예물과 임시적인 예물 뿐 아니라 사실상 가장 많은 양이 소요된 용처는 喪禮이다.

勅使謄錄에 보면 기미년 2월 21일 進香使 방물을 준비하면서 사역원은 「通文館志」을 참고하여 4,000권을 준비하였는데 승덕 계미(1643)년, 순치 신축(1661)년, 강희 임인(1662)년, 옹정 을묘(1735)년의 예를 보니 5,000권이라 하여서 준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같은 책 신축년 2월 2일자에 보면 庚寅년에는 1,000권을 보낸 기록이 있으므로 이 예에 따라 보내기도 했으며, 2,000권을 감면하기도 했지만⁵³⁾ 진향방물로 많은 양이 중국에 간 것은 사실이다. 뿐 만 아니라 효종 원(1650)년에 정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병으로 죽자 백면지 60권과 기타물건을 보낸 기록이 있고, 이때의 예에 따라 사신의 상례에는 이후에도 500권씩 보내게 되었다. 황제의 상례 뿐만 아니라 사신에게도 보낸 것을 알 수 있다.⁵⁴⁾

황제의 사위와 왕의 상에도 백면지 각각 1,000권을 보냈다.⁵⁵⁾ 특히 완림에 많이 들기 때문에 200괴를 준비한다고 하였다.⁵⁶⁾ 한 괴에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00괴는 1,000권이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널에 구의를 덮고 그 위에 백면지를 덮으므로⁵⁷⁾ 그 소요량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53) 「通文館志」紀年續 景宗大王 3年 癸卯 같은 내용의 기록이 「景宗實錄」卷13 3年 9月 癸未에도 있는데 백면지 1,000권을 감하였다고 한다.

54) 「增補文獻備考」卷175 交聘考5, 「通文館志」紀年續 英宗大王 元年 乙巳에 보면 上使 서로가 귀국하다 병사하여 500권을 보낸 기록이 있다. 「勅使謄錄」에 보면 이 때의 일을 전례로 삼았다고 한다.

55) 瀋陽狀啓 辛巳年 2月 9日 承政院開坼, 9월 25일은 부지의 상이라 사위에 못 미쳐 다른 물건은 적게 보냈지만 종이는 백면지는 같은 대신 상화지 50권과 백지 100권으로 달랐다.

56) 「瀋陽狀啓」 癸未年 8月 26日 承政院開坼,

57) 「興園遷奉謄錄」, 광무 11(1907)년 慶嬪禮葬所謄錄 에 쓰여진 경빈의 장례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에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에도 많은 양의 종이 필요했을 것이다.

4.4 책지

백면지는 책지로도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인쇄할 때는各色 책지를 나누어 배정하여 사용하였지만 백면지의 경우는 우리나라 왕실의 서적이나, 중요한 전적의 초사나 인쇄에 사용되었다.

『鑄字所應行節目』에 보면 매 10일마다 公事에 사용할 차백면지, 매년 등록에 사용할 차백면지와 正書會計에 사용할 차백면지를 준비하였다. 『國朝寶鑑』을 백면지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는 기사가 內閣日曆의 정조 6년 11월 4, 11, 23일자에 기재되어 있다. 영조년간에 어제윤음을 백면지에 10건을 써서 5대 史庫에 보관토록 하였으며, 의정부, 육조, 정원, 춘추관, 교서관 등에도 보관하였다.⁵⁸⁾ 정조년간에도 綸音을 백면지로 만들고 장황하여 관동과 사고 등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⁵⁹⁾ 그 밖에 日課百中曆, 七政百中曆, 천세력 등을 백면지로 썼다고 한다.⁶⁰⁾

정조 5년(1781)에 정조가 뽑은 당·송 8대가의 글인 『御定唐宋八子百選』은 모두 13종의 종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백면지로 만든 것이 10건이 있다.⁶¹⁾ 『璿源譜』도 백면지에 써서 나누어 주었다.⁶²⁾ 규장각에도 매년 각종 종이가 정식으로 들어가는데 규장각에서 편찬되는 서적 등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⁶³⁾ 『奎章閣志』의 경우도 원래 백면지로 인쇄하였는데 이를 규장각에 1건, 외규장각에 2건, 그리고 西庫와 여러 사고 등에 각각 나누어 보관하였다. 또 『弘文館志』도 백면지로 인쇄하여 규장각, 외규장각, 그리고 역시 사고 등에 보관하였다. 『大典通編』 등도 백면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종으로 인쇄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⁶⁴⁾

58) 『日省錄』 英祖 52年 7月 乙亥.

59) 『日省錄』 正祖 7年 10月 25日.

60) 成周憲, 『書雲觀志』 進獻.

61) 『西庫藏書錄』 文章類.

62) 『日省錄』 正祖 7年 4月 8日.

63) 『萬機要覽』 財用4 戶曹各掌事例 年例都下 규장각에 납입되는 백면지는 정월에 50권, 12월에 中草 次白綿紙 100권이다.

64) 『日省錄』 正祖 9年 6月 14日, 25日.

「純祖大王追上尊號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儀軌」에 보면 옥책문을 쓸 때, 혹은 어람 반차도에 백면지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임금이 보는 서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적, 그리고 중요하여 보존해야할 서적 등은 백면지 단독, 혹은 여러 종류의 종이와 함께 인쇄, 혹은 서사하였는데 보는 이에 따라 종이의 품질에 차등이 있었고, 혹은 보관하는 곳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백면지의 경우도 일반 책지보다 훨씬 더 귀중한 종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宇字를 쓴 봉투를 백면지로 만들어 군물과 기용을 함께 강화도 별고에 저장하는데 같이 저장하였다고 하였다.⁶⁵⁾ 중요한 기물로 취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試紙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시지의 경우 사치가 심해서 두꺼운 것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너무 두껍게 만들어 가죽과 같던지, 문짜같던지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 백면지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4.5 벽지 및 배접지

백면지는 벽지로도 사용되었다. 행궁의 경우에 외부에 백면지를 발랐는데 셋장지는 초주지를 발랐고, 이보다 하품인 백면지는 외부에 사용했으며, 대청과 방의 도배에 여러 색깔의 능화와 초주지 등과 함께 도배를 하였다.⁶⁶⁾ 초주지나 저주지는 그 양이 많지 않고, 백면지가 이들 양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 벽 전체에 바르는 것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신이 묵을 관사의 도배에도 사용되었는데, 정사, 부사및 통관의 방에 초배는 백지나 휴지로 하고 정배는 백면지나 오동능화지 등으로 하였으며, 창호지의 경우도 장지나 백면지로 하였고 방 밖의 경우도 정배는 백면지 혹은 오동능화지 청능화지로 하였다.⁶⁷⁾ 그러나 정약용에 의하면 벽지도 점차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백면지로 변하였다.⁶⁸⁾

65) 「正祖實錄」卷12 5年 12月 丁亥.

66) 「園幸排設定例」塗楮秩, 地衣秩, 肆觀坪 駐蹕所, 果川行宮 大廳及房排設.

67) 「儀禮總攬」沿路排設.

68) 丁若鏞 「牧民心書」卷3 禮典 第2章 賓客 勅使.

임금의 어람 서적, 혹은 중요서적의 배접에는 백면지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5. 결 론

백면지는 조선후기 방물지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종이이다. 그러므로 백면지에 관한 연구는 방물지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종이에 대한 평가, 혹은 종지와 제지기술의 국제교류관계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백면지에 대한 유래, 품질, 형태, 용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백면지는 백추지, 혹은 경면지라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이를 계승한 종이이며, 그 품질이 비단, 혹은 면과 같이 매끄럽고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 조선후기 이후 두껍고 만들기 어려운 고급지를 대체해서 중국에 세폐, 혹은 임시 방물로 가장 많이 보내졌고, 우리나라 왕실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종이이다.
3. 원료는 닥, 혹은 뽕나무의 수피를 사용하였고, 도침을 하였으며,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에서 생산되었으며, 이 지역의 스님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다.
4. 용도는 우선 청국, 금국, 왜국 등에 예폐로, 부의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왕실과 관청에 납입되어 중요서적의 인쇄, 필사, 시지 등의 서사용, 행궁 등의 벽지 등에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정선영. “고문서의 지질.” 古文書研究 . 20(2002. 2). 71-92.
- 정선영. “桑紙의 保存性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제4권 제2호(2004. 12). 1-22.
- 「한국의 도량형」.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曹靜樓, 吳鐘. “仿乾隆高麗紙的工藝研究.” 「종이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한·중·일 국제포럼 . (서울: 2006). 162-179.
- 陳剛. “中國西南地區的皮紙製造技術.” 제3회 종이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 국제포럼 논문집 . (서울: 2008). 41-46.
- 潘吉星. 中國造紙技術史稿]. 北京: 文物出版社, 1979.
- 陳大川. 中國造紙術盛衰史]. 臺北: 中外出版社, 1979.
- 「慶嬪禮葬所臚錄」
- 「貢弊」
- 金大賢 「悠然堂先生文集」
- 「內閣日曆」
- 「大典會通」
- 「百憲總要」
- 「備邊司臚錄」
- 『儀禮總攬』
- 成周憲 書雲觀志」
- 「受教新補」
- 「瀋陽狀啓」
- 「楊梅詩話」
- 「興園遷奉臚錄」
- 「園幸排設定例」
- 「禮曹關」

『園幸排設定例』
李晬光 「芝峯類說」
「日省錄」
「典客司方物膽錄」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金指南 通文館志」
「湖南大同事目」
「湖西大同事目」
丁若鏞 「牧民心書」
唐秉鈞 「文房肆攷圖說」
宋應星 「天工開物」

